

보도해명자료

(15.11.26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멀어지는 자원부국의 꿈...동해가스전도 경
제성 '글썸' (15.11.26. 서울경제)

1. 기사내용

- 동해-1 가스전의 경제성이 기대를 밑돌고, 부채만 37조에 이르는 가스공사가 연간 2,000억원을 들여 매입
 - 동 천연가스는 열량이 떨어져 액화석유가스(LPG)를 혼합하여 써야할 정도로 상품성이 떨어짐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동해-1 가스전은 '04년부터 '14년말까지 총 8,616억 원은 투입하여 19,046억원 매출을 달성한 성공한 사업이다.
 - 가스공사는 동해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수입 천연가스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매입

(\$/MMbtu)

	2012	2013	2014
천연가스 평균 수입가	14.78	14.97	16.46
동해가스전 판매가	11.57	12.08	13.18

- 동해에서 생산한 천연가스(PNG)와 수입 천연가스(LNG)는 일부 성상의 차이가 있을뿐, 열량에는 차이가 없음

* 석유공사가 해저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자연상태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, 가스공사가 요구하는 품질요건에 맞추어 공급

※ 관련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장 제경희
(044-203-5140)
최영수 사무관
(044-203-5148)